

# 신비 가득한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경전은 법사리 (舍舍利)

## 한국미술사연구소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 강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태)는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를 주제로 제36회 미술사강좌를 열고 있다. 9~12월 매주 월요일 모두 12강을 통해 신비 가득한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의 세계를 여행한다.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무덤임과 동시에 불교도들에게 숭배의 대상이다. 탑 안에는 사리공(舍利函)을 만들어 사리를 봉안했으며, 사리를 보호하거나 장엄하기 위해 사리기와 사리장엄구를 안치했다. 10월 18일 진행된 5강에서는 최웅천 동국대 박물관장이 사리장엄의 정점을 이루었던 '통일신라 사리장엄'을 강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리가 처음 들어온 549년을 기점으로 진신사리(眞身舍利), 변신(變身)사리, 법신(法身)사리 등 다양한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사리장엄구들이 제작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리장엄구는 당시의 최대의 정성과 기술적 역량을 동원해 제작된 뛰어난 작품이 많다. 최 관장은 불국사 금동제 사리외합을 걸작으로 꼽았다. 최 관장은 또 경전을 법신사리라 해 사리와 동일하게 취급했다고 말했다.



불국사 금동제사리외합(국보126): 1966년 10월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할 당시 탑 안에 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유물들과 함께 발견됐다. 안정된 각부 비례와 정제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 사리함 중에서 가장 세련된 작품이다.

(經典)은 특별히 법신사리(法身舍利)라 해 사리와 동일하게 취급됐다.

국제성 띤 통일신라 사리장엄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분황사 모전석탑(蘇皇寺 摸博石塔)의 사리장엄구는 석함(石函) 속에 다른 사리용기는 발견되지

한 수정제 사리병을 안치해 본격적인 사리장엄 형식을 갖추게 된다. 이 같은 사리기의 방형 외형에는 사천왕상이 별주 돼 있는데, 이국적인 무장(武將)의 모습을 하고 있어 당시 통일신라 미술의 국제적인 면모를 반영해 준다. 아울러 근래 해체 수리된 반대쪽 동산층석탑에서도

장식하거나 선각했다. 그러다가 9세기에 들어와서 선림원지탑, 해인사 묘길상탑에서 발견된 것처럼 실제로 77개 혹은 99개의 흙이나 돌로 만든 소탑을 사리기와 별도로 놓게 된다. 이처럼 불국사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서 볼 수 있듯이 8세기에는 이러한 무구정경에 의한 조탑과 그 신앙이 널리 유행을 이루게 돼 사리장엄의 의례도 훨씬 복잡 다양해지게 된다.

통일신라의 사리장엄구 가운데 사리그릇은 금, 은, 동, 유리, 수정, 곱돌(蠟石)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며 3겹, 4겹, 5겹에 이르기까지 포개어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리 안쪽에 놓이는 사리기 일수록 더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며 가장 안쪽의 그릇은 대체로 녹색의 유리병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이밖에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의 형태는 탑의 형태를 한 복발(覆鉢)스투파형과 8각부도형(八角浮屠形), 전각형(殿閣形) 및 관함형(函筒形), 원함형(圓函形)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가운데 전각형 사리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독자적인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정리=이너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 ◎ 우리나라 사리장엄의 특징

### 사리병 시대에 따라

### 유리-수정-청자-백자

우리나라의 사리장엄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돼 왔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리를 모신 가장 내부의 용기는 대체로 유리병을 많이 썼으며 가장 바깥은 석함인 경우가 많다. 둘째, 사리 용기를 중첩하는 순서는 대체로 유리·수정·금·은·돌의 순서로서 이는 인도와 같음을 볼 수 있다.

셋째, 통일신라의 상여형(가마형) 사리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독자적인 형태로서 크게 유행을 이루다가 고려시대에 일부 다시 나타난다. 넷째, 통일신라 후반기에 납석제의 외호가 크게 유행을 이룬다. 다섯째, 신사리와 법사리가 함께 봉안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신사리가 주축을 이루며 고려초기부터 불사의 봉안도 크게 늘어난다.

여섯째, 고려 말과 조선초에 외래양식을 받은 라마탑형의 사리기가 일부 유행하며 이중 혹은 삼중의 금속제 원통형합이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만들어진다. 일곱째, 통일신라의 유리제 사리병 대신 고려 때에는 수정제가 많아지며 외호로서 청자를, 조선시대에는 백자를 많이 썼다. 여덟째, 사리 용기는 한 벌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두 벌인 경우도 있으며, 같은 사 석탑에서 같이 동·서 양 탑에 동일한 사리를 넣은 사실도 새롭게 밝혀지게 됐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사리장엄구는 당시에 있어서도 최대의 정성과 기술적 역량을 동원해 제작된 뛰어난 작품이 많다. 아울러 이곳에는 제작과 관련된 제작 조성연기(造成緣起)와 제작시기 등을 기록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한국 금속공예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더없이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유리병.



최웅천 동국대 박물관장

게 된다. 이처럼 탑이란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무덤인 점에 자연히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탑의 재질이 돌이나 흙, 나무 등에 관계없이 탑의 심초석(心礎石)이나 기단부(基壇部), 또는 1층의 옥개(屋蓋) 및 옥신(屋身) 등에 사리공(舍利函)을 만들어 이곳에 반드시 사리를 봉안했으며, 이러한 사리를 보호하거나 장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리기와 그에 관련된 사리장엄구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경전을 사리와 동일하게 취급 우리나라에 사리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549년으로 양(梁)나라의 무제(武帝)가 심호(沈滂)를 통해 신라 진흥왕에 보

국제성 띤 통일신라 사리장엄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분황사 모전석탑(蘇皇寺 摸博石塔)의 사리장엄구는 석함(石函) 속에 다른 사리용기는 발견되지

동일한 형태를 지닌 사리기가 또 한 벌 발견됨으로써 쌍탑의 경우 각각의 탑에 동일한 사리장엄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8세기 조탑신앙 유행 보여줘 통일신라 중엽에 와서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유입에 따라 99개, 혹은 77개의 탑을 만들어 그 하나 하나에 다라니를 봉안하게 되며 이러한 탑을 '무구정탑'이라 했다. 처음에는 황복사탑 청동외합이나 동경국립 박물관 소장 금동원합처럼 사리기 외면에 99개의 탑을 점선(點線)으로 들출

## 인도에서 발원, 중앙亞 중국 한국 일본에 전파 상여형 사리기는 통일신라 독창적 형태로 유행

팔만사천 탑에 사리 봉안 석가모니가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沙羅雙樹) 아래서 열반에 들자, 자기 영내에서 들어가셨다 해 마르타족이 쿠시나가라에 탑을 세우고 공양하려 하자 주변의 여덟 부족이 달려와 사리를 나누어 주기를 요청했다. 이렇게 여덟 개로 분리된 부처님의 사리를 가지고 여덟 개의 탑을 세웠으나 한 바라문은 사리의 양을 달았던 병을 고향에 가지고 가 병탑(瓶塔)을 세웠고 다시 늦게 달려온 한 부족은 사리 분배가 다 끝남에 따라 재를 가지고 돌아와 회탑(灰塔)을 세워 모두 10개의 탑이 건립됐다.

아쇼카왕 대에 이르러 이 여덟 개의 불사리탑 가운데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탑을 열어 전국에 팔만사천개의 탑을 건립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이러한 사리는 중앙아시아와 중국, 한국, 일본에 까지 퍼져나가 수많은 탑이 세워지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신라의 자장법사는 선덕왕 12년(643년)에 부처의 두골과 불아(佛牙), 불사리 1백과 및 부처가 입던 비라금점가사(緋羅金點袈裟) 한 벌을 가져와 황룡사 구층탑, 태화탑(太和塔)과 통도사 계단(坡壇)의 3곳에 나누어 봉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중국을 통해 들어온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해 탑을 세우고자 했으나 금방 그 수요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모래, 수정, 보석류와 같은 광물로 사리를 대용한 변신사리(變身舍利)나 법신사리가 널리 쓰이게 됐다. 특히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을 기록한 경전

얇은 대신 은합과 은침통, 금·은 바늘과 가위, 동전 등 당시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많은 수의 생활용품이 발견됐다. 이러한 물건들은 탑의 건립 시 건물터를 다져 나갈 때 기초 속에 넣어지는 지진구(地鎮具)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지진구란 탑의 터를 잡는 점지(占地) 때 행하는 지진제와 관련된 유물로서 건물터를 다져가는 과정에서 땅 속에 스며드는 악기(惡氣)를 진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통일신라 682년에 제작된 감은사(感恩寺) 서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기는 상사형의 청동외합과 전각형의 내합, 그리고 이 내합 위에는 은마개를 두각 장식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